

4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이틀째 반등 [다우: 7,761.6pt (+ 2.01%)]	주택경기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뉴욕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음. 뉴욕증시는 장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오는 금요일 미 정부의 3월 고용지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이 공개한 3월 민간부문 고용감소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점이 부담이 되었음. 그러나 주택판매의 선행지표인 2월 잠정주택판매가 전망치를 상회한데다, 공급관리자협회(ISM)의 3월 제조업지수도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지수들이 장중 오름세로 돌아섰음. 특히 주요 지수들의 상승폭은 장후반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일각에선 `시가평가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시장의 하락에 베팅했던 일부 공매도 세력들이 `숏커버리징`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폭을 넓혔다는 분석도 나왔음.
주택경기 지표 개선..주택건설주 강세	기준주택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미국의 잠정주택판매(pending home sales)가 지난 2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영향으로 주택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음.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2월 잠정주택판매 지수가 전월 80.4에서 82.1로 2.1%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는 전월 7.7% 감소에서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고, 1% 안팎의 증가를 예상한 월가의 전망치도 웃돈것임.
은행주 상승..시가평가 기준 완화 기대	씨티그룹과 JP모간체이스 등 은행주들은 반등세를 보였음. 미국 금융회계기준위원회(FASB)가 2일 시가평가 기준 완화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는 점이 재료로 작용했음. 로버트 허츠 FASB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가평가 규정이 완화되면 씨티그룹 등 은행들의 이익이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일각에선 `시가평가`를 앞두고 은행업종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의 `숏커버리징`이 장막판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음.
IMF총재 "G20, 부실자산 해결이 가장 중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부실자산 해결과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연장시키는 위험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 스트로스-칸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IMF가 경험한 122개 금융위기에서 비취볼때 금융권 부실자산을 해결하기 전까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 같이 언급.

제목	주요 내용
유로존 실업률, 3년 최고	유럽연합(EU) 통계국은 2월 실업률이 전월의 8.3%(수정치)에서 8.5%로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월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했다. 블룸버그통신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이 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中 자본시장 유동성 2분기 급증 전망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자본시장의 유동성 규모는 인민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을 배제하더라도 2분기에 1조위안(1,460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인민은행 채권과 환매조건부 채권(RP) 규모는 총 1조9,100억달러에 이르며, 3,779억위안의 정부 채권도 상환된다. 2분기 채권 발행 규모는 1조1,600억~1조3,400억위안으로 예상.
日 2월 철강수출, 45년래 최대폭 감소	철강연맹 발표에 따르면 2월 일본의 철강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한 188미터톤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 일본의 철강 수출은 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 특히 2월의 수출 감소 속도는 1964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
日, 신차판매 전년비 11.6% 급감..31년래 최저	일본의 지난 2008년 회계연도 신차 판매 규모가 470만대에 그치며 31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전년 대비 11.6% 줄어든 수치로, 3년 연속 감소세. 일본 자동차딜러협회에 따르면 660cc 이상의 등록차량 판매량은 289만대로 15.6%나 급감해 지난 196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고급 대형 승용차를 포함한 승합차 역시 18.2%나 감소.
외환보유액 48억弗 늘어..2,063억弗	한은은 지난달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의 강세로 이들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도래분 5억 달러가 유입됐고 보유 외환의 운영수익도 발생했음.
대기업 부채비율 급속도로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8개 대기업집단의 부채총액은 2008사업연도 기준으로 691조 9,000억원으로 1년새 190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41개)의 평균 부채비율(부채총액/자본총액)은 2007년말 98.4%에서 지난해 119.9%로 21.5포인트 높아졌음.
3월말 車 판매 `뚝`.. 세금감면이 직격탄	노후차량 보유자가 신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정부 발표 뒤 차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간 매일 26일부터 말일까지의 일 평균 차 판매 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정부정책이 발표된 3월에는 최대 43%나 감소. 이는 제도 시행이 예상되는 5월까지 신차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이미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도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